

<전 매체> 2022년 8월 9일(화) 09:00 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 문의 : 투자회수관리과 권영학 과장(044-204-7720), 최형민 사무관(7722), 윤원민 주무관(7727)

혁신 벤처·창업초기기업(스타트업), 지난 1년새 6만 8천여명 고용 늘려

- 지난 1년 전체 기업 고용 증가율 3.3%보다 약 3배 높은 9.7% 고용 성장
 - 특히 벤처투자 받은 기업 고용 증가율은 40.5%, 거대신생기업(유니콘)(이력 포함) 기업 14개사 고용 증가율은 39.4%로 고용 창출의 중심축 역할
 - 전체 고용보험 청년 가입자 증가 인원 중 벤처·창업초기기업(스타트업)이 50.5%를 차지하면서 청년 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주역으로 자리매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는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보험가입 현황을 토대로 '22년 6월 말 기준 혁신 벤처·창업초기기업(스타트업)의 고용 동향을 분석한 결과, 1년 전과 비교해 고용이 크게 늘어났다고 밝혔다.

【분석 대상기업】

- ① 벤처·창업초기기업(스타트업)(34,362개사): 벤처기업 혹은 벤처투자 받은 기업 중 고용정보 유효기업 34,362개사(② 벤처기업 U ③ 벤처투자 받은 기업)
- ② 벤처기업(34,174개사): '22년 6월말 기준 벤처기업 36,737개사 중 고용정보 유효기업 34,174개사
- ③ 벤처투자 받은 기업(1,067개사): '22년 상반기 벤처투자 받은 기업 1,350개사 중 고용정보 유효기업 1,067개사

※ 한국고용정보원의 '22년 6월말 기준 고용 데이터 추출

【출처 : 벤처확인 공시시스템(벤처기업), 벤처투자종합정보(벤처투자기업), 한국고용정보(고용)】

'22년 6월 말 기준 벤처·창업초기기업(스타트업) 고용 동향

(1) 전체 : **혁신 벤처·창업초기기업(스타트업) 3만 4,362개사의 '22년 6월 말 기준 고용 76만 1,082명, '21년 6월 말 대비 6만 7,605명 고용 증가**

'22년 6월 말 고용정보가 유효한 벤처기업(유효기업 3만 4,174개사)과 '22년 벤처투자 받은 기업(유효기업 1,067개사) 중 중복기업 879개사를 제외한 벤처·창업초기기업(스타트업) 3만 4,362개사의 고용은 76만 1,082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21년 6월 말 69만 3,477명 대비 6만 7,605명 증가한 수치로, 고용 정보 제공 미동의 기업 등 고용 현황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기업까지 포함하면 벤처·창업초기기업(스타트업)이 늘린 고용은 더욱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증가율로 보면 벤처·창업초기기업(스타트업) 고용 증가율은 약 9.7%로 우리나라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율(+3.3%) 대비 약 3배 높은 수준이었으며,

특히, 벤처투자 받은 기업의 고용 증가율은 약 40.5%로 전체 보험가입자 증가율보다 무려 12배 이상 높게 나타나 벤처투자 받은 기업의 고용 증가 효과가 뚜렷했다.

< 고용통계별 '21년 6월 ~ '22년 6월 고용 현황 >

구 분	통계청 전체 취업자	고용정보원 전체 피보험자	혁신 벤처· 창업초기기업 (스타트업) 피보험자 (34,362개사)	벤처기업 (34,174개사)	벤처투자 받은 기업 (1,067개사)	
'21년 6월말	27,637,000명	14,369,563명	693,477명	687,271명	32,906명	
'21년 12월말	27,298,000명	14,550,033명	728,811명	722,027명	38,232명	
'22년 6월말	28,478,000명	14,848,311명	761,082명	753,080명	46,236명	
'21.6 대비	증가	+841,000명	+478,748명	+67,605명	+65,809명	+13,330명
	증가율	+3.0%	+3.3%	+9.7%	+9.6%	+40.5%
	기업당 증가	-	-	+2.0명	+1.9명	+12.5명
'21.12 대비	증가	+1,180,000명	+298,278명	+32,271명	+31,053명	+8,004명
	증가율	+4.3%	+2.1%	+4.4%	+4.3%	+20.9%
	기업당 증가	-	-	+0.9명	+0.9명	+7.5명

(2) 청년/여성 : '21년 6월 말 대비 전체 고용증가(+6.8만명)의 10명 중 2명은 만 29세 이하 청년, 4명은 여성

(청년) '22년 6월 말 기준 벤처·창업초기기업(스타트업) 고용 중 청년 (만 15세 이상 ~ 만 29세 이하) 고용은 약 26.9%인 20만 4,437명이었다.

'21년 6월 말(18만 9,301명) 대비 청년 고용은 1만 5,136명 증가했고, 이는 벤처·창업초기기업(스타트업) 고용 증가인 6만 7,605명의 약 22.4%를 차지해 벤처·창업초기기업(스타트업)들이 고용을 10명 늘릴 때 이 중 2명은 청년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지난 1년간 벤처·창업초기기업(스타트업)의 청년 고용 증가율은 약 8.0%로 국내 고용보험 청년 가입자의 증가율(+1.2%)보다 약 6.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같은 기간 국내 고용보험 청년 가입자가 2만 9,948명 증가한 가운데 벤처·창업초기기업(스타트업)은 이 중 절반 이상(50.5%)인 1만 5,136명의 청년 고용을 늘리면서, 벤처·창업초기기업(스타트업)이 청년 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주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22년 상반기 혁신 벤처·창업초기기업(스타트업)의 청년고용 현황 (단위: 명) >

구 분	'21년 6월말	'21년 12월말	'22년 6월말	'21년 대비		증 가	증가율
				6월말	12월말		
국내 고용보험 청년가입자	2,476,279	2,493,751	2,506,227	6월말	국내 고용보험 청년 가입자	+29,948	+1.2%
벤처창업초기기업(스타트업)	693,477	728,811	761,082		벤처창업초기기업(스타트업)	+67,605	+9.7%
청년	189,301	198,763	204,437		청년	+15,136	+8.0%
비 중	27.3%	27.3%	26.9%	12월말	국내 고용보험 청년 가입자	+12,476	+0.5%
					벤처창업초기기업(스타트업)	+32,271	+4.4%
					청년	+5,674	+2.9%

(여성) '22년 6월 말 기준 벤처·창업초기기업(스타트업) 전체 고용 중 여성 고용은 전체 고용의 약 32.8%인 24만 9,411명이었다.

'21년 6월 말(22만 875명) 대비 여성 고용은 2만 8,536명 늘었으며, 전체 고용 증가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42.2%로 나타나 벤처·창업초기기업(스타트업)이 고용을 10명 늘릴 때 이 중 4명은 여성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지난 1년간 벤처·창업초기기업(스타트업)의 여성 고용 증가율은 약 12.9%로 전체 고용 증가율(9.7%)보다 3.2%p 높았고, 국내 전체 고용보험 여성 가입자의 증가율인 4.2%와 비교하면 3배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2년 상반기 혁신 벤처·창업초기기업(스타트업)의 여성고용 현황 (단위: 명) >

구 분	'21년 6월말	'21년 12월말	'22년 6월말	'21년 대비		증 가	증가율
				6월말	12월말		
국내 고용보험 여성가입자	6,295,604	6,392,404	6,561,191	6월말	국내 고용보험 여성 가입자	+265,587	+4.2%
벤처창업초기기업(스타트업)	693,477	728,811	761,082		벤처창업초기기업(스타트업)	+67,605	+9.7%
여 성	220,875	235,115	249,411	12월말	여 성	+28,536	+12.9%
비 중	31.9%	32.3%	32.8%		국내 고용보험 여성 가입자	+168,787	+2.6%
					벤처창업초기기업(스타트업)	+32,271	+4.4%
					여 성	+14,296	+6.1%

(3) 신설기업 : '22년 설립된 벤처·창업초기기업(스타트업) 92개사, 836명 고용 창출

'22년 6월 말 벤처·창업초기기업(스타트업) 3만 4,362개사 중, '22년에 창업한 벤처·창업초기기업(스타트업)은 92개사*로 확인됐다.

* 신설 벤처기업 57개사, 신설 벤처투자 기업 45개사 중 중복 10개사를 제외한 기업 수

'22년 신설 벤처·창업초기기업(스타트업)들은 '22년 6월 말 836명을 고용 중이었으며, 이는 이들 기업들이 '22년에만 고용을 836명 늘린 것으로 볼 수 있다.

'22년 신설 기업 92개사는 '21년 12월말 대비 기업당 고용을 '21년 이전 창업한 기존 기업들(+0.9명)보다 10배 이상 높은 약 9.1명을 늘리면서, 전체 고용 증가(3만 2,271명)의 약 2.6%를 견인했다.

이는 '22년 코로나 위기에도 신설된 벤처·창업초기기업(스타트업)들이 고용 증가에 기여했음을 보여준과 동시에,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창업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 '22년 상반기 혁신 벤처·창업초기기업(스타트업) 중 '22년 신설기업 고용 현황 >

구 분	기업 수	'21년 12월말	'22년 6월말	증가	증가율	기업당 증가
전 체	34,362개사	728,811명	761,082명	+32,271명	+4.4%	+0.9명
신 설	92개사	-	836명	+836명	순증	+9.1명
비 중	0.3%	-	0.1%	2.6%	-	-
기 존	34,270개사	728,811명	760,246명	+31,435명	+4.3%	+0.9명
비 중	99.7%	100.0%	99.9%	97.4%	-	-

(4) 고용증가 상위 10개사: '21년 6월 말 대비 4,048명 증가, 전체 고용 증가 6만 7,605명의 6.0% 차지

'21년 6월 말 대비 고용을 가장 많이 늘린 10개사의 총 고용 증가는 4,048명으로 전체 고용 증가의 약 6.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은 기업당 고용을 약 404.8명 늘리면서, 전체 벤처·창업초기 기업(스타트업)의 기업당 고용 증가인 약 2.0명보다 평균적으로 200배 넘게 고용을 늘렸다.

상위 10개사 중 정보통신기술(ICT)서비스,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유통·서비스 분야 기업이 8개사로, 그중 신선식품 배송 거래터(플랫폼) '마켓컬리'를 운영하는 컬리는 1년간 고용을 가장 많이 늘렸다.

< '22 상반기 벤처·창업초기기업(스타트업) 중 '21.6월 대비 고용 증가 상위 10개사 현황(단위: 명, %) >

상위	기업명	업종	사업특징	고용현황 ('22.6월)	'21.6월 대비		벤처기업	투자기업
					증가	증가율		
1	컬리	유통·서비스	▪ 농산물 도소매	2,597	+701	+37.0	○	
2	A사(비공개 요청)	유통·서비스	▪ 비공개 요청	1,122	+550	+96.2	○	○
3	B사(비공개 요청)	전기기계장비	▪ 휴대폰배터리 부품	965	+459	+90.7	○	
4	우아한형제들	정보통신기술(ICT)서비스	▪ 배달앱 서비스	1,741	+444	+34.2	○	
5	C사(비공개 요청)	유통·서비스	▪ 비대면 세탁서비스	592	+378	+176.6	○	
6	D사(비공개 요청)	유통·서비스	▪ 클라우드펀딩플랫폼	348	+315	+954.5	○	
7	패스트파이브	기타	▪ 공유오피스 서비스	328	+315	+2,423.1	○	
8	E사(비공개 요청)	유통·서비스	▪ 반도체 테스트 전문서비스	453	+302	+200.0		○
9	비바리퍼블리카	정보통신기술(ICT)서비스	▪ 모바일 금융 플랫폼	749	+297	+65.7	○	
10	워시스왓	유통·서비스	▪ 맞춤형 세탁서비스	585	+287	+96.3	○	○
합계				9,480	+4,048	+74.5	9개사	3개사

'22년 상반기 혁신 벤처창업초기기업(스타트업) 고용증가(+67,605명) 대비 상위 10개사 증가(+4,048명) 약 60%

'22년 6월 말 기준 벤처기업 고용

(1) 전체 : 벤처기업 3만 4,174개사 '22년 6월 말 고용 75만 3,080명,
'21년 6월 말 대비 6만 5,809명 증가

'22년 6월 말 벤처기업 3만 6,737개사 중 고용정보 유효기업 3만 4,174개사의 전체 고용은 '22년 6월 말 기준 75만 3,080명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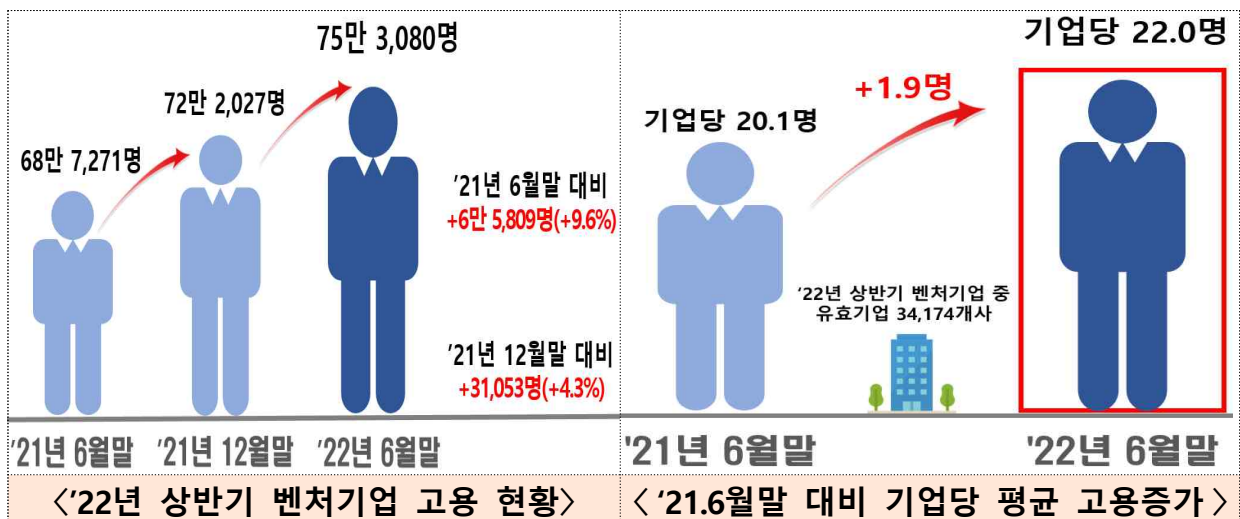
이는 '21년 6월 말 기준 68만 7,271명보다 6만 5,809명 늘어난 것으로, 고용 증가율은 약 9.6%였다.

6개월 전인 '21년 12월 말과 비교해보면 3만 1,053명이 늘었고, 고용 증가율은 약 4.3%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2년 6월말 기준 벤처기업당 고용은 22.0명으로 1년 전과 비교해 약 2명 가까이 늘었고, 6개월 전과 비교하면 약 0.9명 늘었다.

< '22년 상반기 벤처기업의 고용 현황 (단위: 명) >

구 분	'21년 6월말	'21년 12월말	'22년 6월말	'21년 대비	증 가	증가율	기업당 증가
고용현황	687,271	722,027	753,080	6월말	+65,809	+9.6%	+1.9
				12월말	+31,053	+4.3%	+0.9



이번 벤처기업 고용통계는 '22년 6월 말 기준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파악한 것으로, 이들 기업의 '21년도 말 고용은 우리나라 4대 대기업 그룹보다 2천여명 많은 약 72.2만명으로 나타났다.

※ 4대 그룹 상시 근로자 수('21년말 기준, 출처 : 기업집단포털) : 약 72.0만명
 (①삼성 26.7만명, ②현대차 17.5만명, ③LG 16.0만명, ④SK 11.8만명)

(2) 청년/여성 : 1년 전 대비 전체 고용증가(+6.6만명)의 10명 중 2명은 만 29세 이하 청년, 10명 중 4명은 여성

(청년) '22년 6월 말 벤처기업 전체 고용 중 청년(만 15세 이상~만 29세 이하) 고용은 20만 1,677명으로 전체 고용의 약 26.8%를 차지했다.

'21년 6월 말(18만 7,216명) 대비 청년 고용 증가는 전체 고용 증가(6만 5,809명)의 약 22.0%인 1만 4,461명으로 파악됐다.

< '22년 상반기 벤처기업의 청년 고용 현황 (단위: 명) >

구 분	'21년 6월말	'21년 12월말	'22년 6월말	'21년 대비		증 가	증가율	기업당 증가
				6월말	전 체			
전 체	687,271	722,027	753,080	6월말	전 체	+65,809	+9.6%	+1.9
청 년	187,216	196,534	201,677	6월말	청 년	+14,461	+7.7%	+0.4
비 중	27.2%	27.2%	26.8%	12월말	전 체	+31,053	+4.3%	+0.9
					청 년	+5,143	+2.6%	+0.2

(여성) '22년 6월 말 벤처기업 전체 고용 중 여성 고용은 24만 6,377명으로 전체 고용의 약 32.7%를 차지했다.

'21년 6월 말(21만 8,651명) 대비 여성 고용 증가는 전체 고용 증가(6만 5,809명)의 약 42.1%에 해당하는 2만 7,726명이었다.

또한 여성 고용 증가율도 전체 고용 증가율(9.6%)보다 3.1%p 높은 약 12.7%이었으며 기업당 고용 증가는 약 0.8명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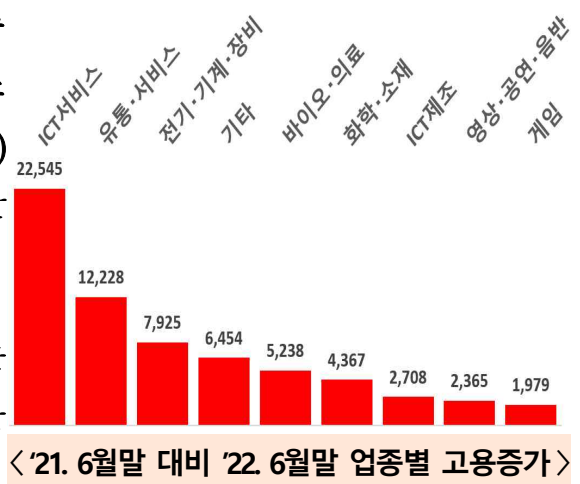
< '22년 상반기 벤처기업의 여성 고용 현황 (단위: 명) >

구 분	'21년 6월말	'21년 12월말	'22년 6월말	'21년 대비		증 가	증가율	기업당 증가
				6월말	전 체			
전 체	687,271	722,027	753,080	6월말	전 체	+65,809	+9.6%	+1.9
여 성	218,651	232,643	246,377		여 성	+27,726	+12.7%	+0.8
비 중	31.8%	32.2%	32.7%	12월말	전 체	+31,053	+4.3%	+0.9
					여 성	+13,734	+5.9%	+0.4

(3) 업종별 : 정보통신기술(ICT)서비스(+2만 2,545명),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유통·서비스(+1만 2,228명), 전기·기계·장비(+7,925명) 등이 전체 고용증가 견인

업종별 고용 현황을 살펴보면, 정보통신기술(ICT)서비스(+2만 2,545명), 유통·서비스(+1만 2,228명), 전기·기계·장비(+7,925명) 3개 업종이 전체 고용 증가를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3개 업종의 고용 증가(4만 2,698명)는 전체 고용 증가(6만 5,809명)의 64.9%를 차지하였다.



정보통신기술(ICT)서비스, 유통·서비스의 경우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체제(플랫폼) 기업들 중심으로 전기·기계·장비의 경우는 반도체, 2차전지 장비·부품 제조 벤처기업들 중심으로 고용이 늘었다.

< '22년 상반기 벤처기업의 '21년 6월말 대비 업종별 고용 현황 >

구분	기업 수	고용			
		'21년 6월말	'22년 6월말	증가	증가율
정보통신기술(ICT)서비스	6,738개사	149,124명	171,669명	+22,545명	+15.1%
유통·서비스	4,116개사	90,050명	102,278명	+12,228명	+13.6%
전기·기계·장비	8,046개사	154,338명	162,263명	+7,925명	+5.1%
기타	4,851개사	81,599명	88,053명	+6,454명	+7.9%
바이오·의료	1,798개사	43,348명	48,586명	+5,238명	+12.1%
화학·소재	5,056개사	86,768명	91,135명	+4,367명	+5.0%
정보통신기술(ICT)제조	2,712개사	58,569명	61,277명	+2,708명	+4.6%
영상·공연·음반	521개사	10,288명	12,653명	+2,365명	+23.0%
게임	336개사	13,187명	15,166명	+1,979명	+15.0%
합계	34,174개사	687,271명	753,080명	+65,809명	+9.6%

(4) 벤처기업 유형별 : 1년전 대비 고용 증가율은 벤처투자형(+25.2%)이 가장 높아

- 벤처기업 유형 : ('21.2.12 이전, 유효기간 2년) 보증·대출형, 벤처투자형, 연구개발형 → ('21.2.12 이후, 유효기간 3년) 혁신성장형, 벤처투자형, 연구개발형
- ① 혁신성장형('21년 신설) : 기술성 및 사업성 평가 우수 기업
- ② 벤처투자형 : 벤처투자사 등 적격투자기관으로부터 5,000만원 이상 & 자본금 대비 10% 이상 투자받은 기업
- ③ 연구개발형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 연구개발비 5,000만원 이상 등
- ④ 보증·대출형(폐지) : 보증·대출 8,000만원 이상 & 기술성 평가 우수 등

벤처기업 네 가지 유형 중 고용 증가율과 기업당 고용 증가가 가장 높은 유형은 모두 벤처투자형인 것으로 파악됐다.

벤처투자형은 전체 고용 증가율(9.6%)보다 15.6%p 높은 약 25.2%의 고용증가율을 기록했고 기업당 고용 증가도 가장 높은 약 6.7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 수는 전체의 12.5%에 불과한 벤처투자형이 전체 고용 증가(+6만 5,809명)의 약 43.7%를 차지하였는데, 이 같은 결과는 벤처투자가 벤처기업 고용 증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22년 상반기 벤처기업의 각 유형별 '21년 6월 말 대비 고용 현황 비교 >

구 분	기업 수 (A)	'21년 6월말	'22년 6월말(B)	기업당 고용(B/A)	'21년 6월말 대비		
					증 가	증가율	기업당 평균 증가
전체 고용현황	34,174개사	687,271명	753,080명	22.0명	+65,809명	+9.6%	+1.9명
벤처투자형	4,286개사	113,978명	142,717명	33.3명	+28,739명	+25.2%	+6.7명
비 중	12.5%	16.6%	19.0%	-	43.7%	-	-
혁신성장형	14,544개사	284,359명	307,413명	21.1명	+23,054명	+8.1%	+1.6명
비 중	42.6%	41.4%	40.8%	-	35.0%	-	-
보증대출형	10,144개사	179,522명	187,245명	18.5명	+7,723명	+4.3%	+0.8명
비 중	29.7%	26.1%	24.9%	-	11.7%	-	-
연구개발형	5,200개사	109,412명	115,705명	22.3명	+6,293명	+5.8%	+1.2명
비 중	15.2%	15.9%	15.4%	-	9.6%	-	-

**(5) 신설 벤처기업 : '22년 신설 벤처 57개사가 약 6백명 순고용 창출
→ 기업당 10.6명 고용 증가**

'22년 신설 벤처기업으로 확인된 57개사의 '22년 6월말 고용은 606명으로, 이는 올 상반기에만 순고용이 606명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신설 벤처기업이 아닌 기존 벤처기업들은 기업당 약 0.9명의 고용을 늘린 반면, 신설 벤처기업당 고용증가는 이보다 9.7명 많은 약 10.6명이었다.

이는 벤처기업 고용 증가에 기존 벤처기업들이 늘린 고용뿐만 아니라 벤처기업이 신설됨으로써 발생하는 순고용 효과도 상당 부분 기여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 '22년 상반기 벤처기업 중 '22년 신설기업 고용 현황 >

구 분	기업 수	'21년 12월말	'22년 6월말	증가	증가율	기업당 증가
전 체	34,174개사	722,027명	753,080명	+31,053명	+4.3%	+0.9명
신 설	57개사	-	606명	+606명	순증	+10.6명
비 중	0.2%	-	0.1%	2.0%	-	-
기 존	34,117개사	722,027명	752,474명	+30,447명	+4.2%	+0.9명
비 중	99.8%	100.0%	99.9%	98.0%	-	-

'22년도 6월 말 기준 벤처투자 받은 기업 고용

(1) 전체 : '22년 상반기 벤처투자 받은 기업, 1년 사이 약 1.3만명 고용 늘려

'22년 상반기 벤처투자 받은 기업 1,350개사 중 고용정보 유효기업 1,067개사의 전체 고용은 '22년 6월 말 기준 4만 6,236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21년 6월 말 대비 1만 3,330명의 고용이 늘어난 것으로, 고용증가율은 약 40.5%이었다. 또한 6개월 전인 '21년 12월 말과 비교해보면 8,004명이 늘었으며, 고용증가율은 약 20.9%인 걸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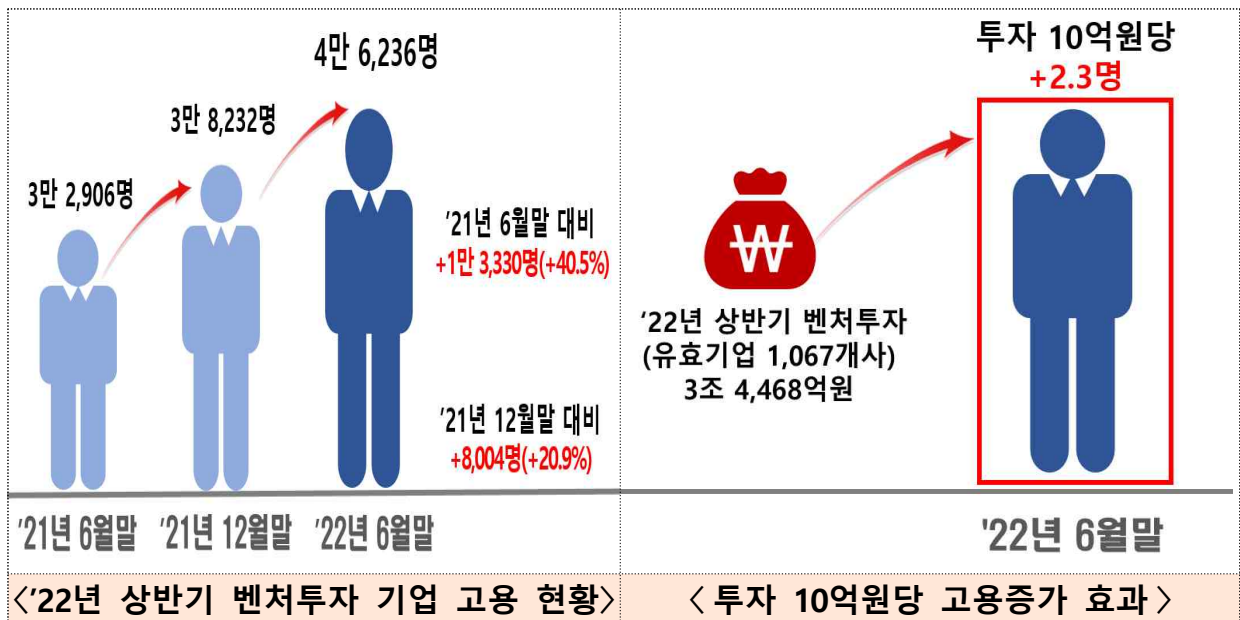
'22년 상반기 벤처투자 받은 기업당 고용은 약 43.3명으로 투자 직전 시기인 '21년 12월 말과 비교해 약 7.5명이 늘어난 수준이다.

벤처투자 10억원 당 고용증가 효과는 약 2.3명으로 나타났다.

< '22년 상반기 벤처투자 받은 기업의 고용 현황 (단위: 명) >

구 분	'21년 6월말	'21년 12월말	'22년 6월말	'21년 대비	증 가	증가율	기업당 증가
				6월말	+13,330	+40.5%	
고용현황 (1,067개사)	32,906	38,232	46,236	12월말	+8,004	+20.9%	+7.5

※ 참고 : 고용정보 유효기업 1,067개사의 벤처투자 유치액은 3조 4,468억원



(2) 청년/여성 : '21년 12월 말 대비 전체 고용 증가의 3명 중 1명은 만 29세 이하 청년, 10명 중 4명은 여성

(청년) '22년 상반기 벤처투자 받은 기업 전체 고용 중 청년(만 15세 이상~만 29세 이하) 고용은 전체 고용의 약 37.6%인 1만 7,397명이었다.

'21년 12월 말(1만 4,426명) 대비 청년 고용은 2,971명 증가했고, 청년 고용 증가는 전체 고용 증가(+8,004명)의 약 37.1%를 차지하면서 전체 벤처투자 받은 기업이 고용을 3명 늘릴 때 1명 이상은 청년을 고용한 셈이다.

< '22년 상반기 벤처투자 받은 기업의 청년 고용 현황 (단위: 명) >

구 분	'21년 6월말	'21년 12월말	'22년 6월말	'21년 대비		증 가	증가율	기업당 증가
				6월말	청 년			
전 체	32,906	38,232	46,236	6월말	전 체	+13,330	+40.5%	+12.5
청 년	12,667	14,426	17,397		청 년	+4,730	+37.3%	+4.4
비 중	38.5	37.7	37.6	12월말	전 체	+8,004	+20.9%	+7.5
					청 년	+2,971	+20.6%	+2.8

(여성) '22년 상반기 벤처투자 받은 기업 전체 고용 중 여성 고용은 1만 8,666명으로 전체 고용의 약 40.4%를 차지했다.

'21년 12월 말(1만 5,057명) 대비 여성 고용은 3,609명 늘었으며, 전체 고용 증가(+8,004명) 대비 여성 고용 증가는 약 45.1%로 나타나 벤처투자 받은 기업들이 고용을 10명 늘릴 때 4명 이상은 여성을 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1년 6월 말, 12월 말 대비 모두 여성 고용 증가율(+46.0%, +24.0%)은 전체 고용 증가율(+40.5%, +20.9%)보다 높은 걸 확인할 수 있었다.

< '22년 상반기 벤처투자 받은 기업의 여성 고용 현황 (단위: 명) >

구 분	'21년 6월말	'21년 12월말	'22년 6월말	'21년 대비		증 가	증가율	기업당 증가
				6월말	여 성			
전 체	32,906	38,232	46,236	6월말	전 체	+13,330	+40.5%	+12.5
여 성	12,785	15,057	18,666		여 성	+5,881	+46.0%	+5.5
비 중	38.9	39.4	40.4	12월말	전 체	+8,004	+20.9%	+7.5
					여 성	+3,609	+24.0%	+3.4

(3) 업종별 : 벤처투자 증가상위 3개 업종(ICT서비스, 유통·서비스, 영상공연·음반), 투자 직전 시기인 '21년 12월 말 대비 고용증가 상위 3개

투자 직전 시기인 '21년 12월 말과 비교한 업종별 고용증가는 정보통신 기술(ICT)서비스(+2,815명), 유통·서비스(+2,773명), 영상·공연·음반(+707명) 순으로 많았다.

특히 이들 3개 업종은 '22년 상반기 벤처투자가 가장 많이 증가한 업종들로 벤처투자증가 순위와 고용증가 순위가 동일했다.

한편 상위 3개 업종 중 유통·서비스 업종은 최근 정보통신기술(ICT) 플랫폼 기반 도·소매업계의 고용이 주로 늘면서 고용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 유통·서비스 내 도·소매업 고용증가 : +1,318명(유통·서비스업 고용증가의 약 47.5%)

투자 10억원 대비 고용 증가 효과는 영상·공연·음반 업종이 약 3.95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유통·서비스(+3.91명), 게임(+2.87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 '22년 상반기 벤처투자 받은 기업의 업종별 고용 현황 (단위: 명) >

구 분	기업 수	'22.상 벤처투자 (A)	고 용				투자 10억원 대비 고용 증가 (=B/(A*0.1))
			'21년 12월말	'22년 6월말	증 가 (B)	증가율	
정보통신기술 (ICT)서비스	399개사	12,550억원	12,383	15,198	+2,815	+22.7%	+2.2
유통·서비스	216개사	7,088억원	10,149	12,922	+2,773	+27.3%	+3.9
영상·공연·음반	78개사	1,792억원	2,390	3,097	+707	+29.6%	+3.9
바이오·의료	144개사	5,802억원	2,640	3,086	+446	+16.9%	+0.8
정보통신기술 (ICT)제조	40개사	1,800억원	3,557	3,868	+311	+8.7%	+1.7
게임	30개사	984억원	1,335	1,617	+282	+21.1%	+2.9
전기·기계·장비	64개사	2,036억원	2,522	2,776	+254	+10.1%	+1.2
기타	56개사	1,124억원	1,825	2,048	+223	+12.2%	+2.0
화학·소재	40개사	1,292억원	1,431	1,624	+193	+13.5%	+1.5
합계	1,067개사	34,468억원	38,232	46,236	+8,004	+20.9%	+2.3

(4) 신설 기업 : '22년 신설된 피투자기업 45개사, 292명 순고용

'22년 상반기 벤처투자를 유치한 기업 중 신설된 기업은 45개사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은 '22년 6월 말 292명을 고용 중이었다.

벤처투자 받은 기업의 기업당 평균 고용은 약 6.5명으로, 창업한 해에 투자를 받으면 평균적으로 6.5명을 고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22년 상반기 벤처투자 받은 기업 중 '22년 신설기업 고용 현황 >

구 분	기업 수	'21년 12월말	'22년 6월말	증가	증가율	기업당 증가
전 체	1,067개사	38,232명	46,236명	+8,004명	+20.9%	+7.5명
신 설	45개사	-	292명	+292명	순증	+6.5명
비 중	4.2%	-	0.6%	+3.6%	-	-
기 존	1,022개사	38,232명	45,944명	+7,712명	+20.2%	+7.5명
비 중	95.8%	100.0%	99.4%	+96.4%	-	-

(5) 지역별 고용 : 서울, 경기 등 벤처투자 상위 2개 지역

→ 고용 증가도 투자 규모에 비례하여 증가

지역별 벤처투자 상위 2개 지역은 서울(2조 356억원), 경기(7,372억원) 순이었으며,

벤처투자 받은 기업의 고용 증가 상위 2개 지역도 서울(+5,905명), 경기(+922명)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벤처투자 받은 기업의 고용 증가 순위는 벤처투자 규모 순위와 대체로 유사하게 나타나, 벤처투자된 자금이 고용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 지역별 '22년 상반기 벤처투자 규모 및 고용 증감 현황 >

구 분	벤처투자		고용			순 위			
	금 액	비 중	'21년 12월말	'22년 6월말	증가	투자 규모	고용 증가	투자순위 대비비교	
수 도 권	서울	20,356억원	59.1%	24,384명	30,289명	+5,905명	1	1	-
	인천	172억원	0.5%	1,800명	1,818명	+18명	14	13	▲1
	경기	7,372억원	21.4%	5,687명	6,609명	+922명	2	2	-
	소 계	27,900억원	80.9%	31,871명	38,716명	+6,845명	-	-	-
5 대 광 역 시	부산	634억원	1.8%	517명	612명	+95명	4	7	▼3
	대구	244억원	0.7%	799명	848명	+49명	13	8	▲5
	광주	309억원	0.9%	73명	84명	+11명	11	14	▼3
	울산	518억원	1.5%	240명	273명	+33명	5	9	▼4
	대전	2,127억원	6.2%	1,433명	1,731명	+298명	3	4	▼1
	소 계	3,832억원	11.1%	3,062명	3,548명	+486명	-	-	-
지 방	강원	110억원	0.3%	205명	214명	+9명	15	15	-
	충북	467억원	1.4%	580명	907명	+327명	8	3	▲5
	충남	416억원	1.2%	815명	847명	+32명	9	10	▼1
	전북	365억원	1.1%	97명	120명	+23명	10	11	▼1
	전남	32억원	0.1%	85명	61명	△24명	17	17	-
	경북	504억원	1.5%	404명	590명	+186명	6	5	▲1
	경남	479억원	1.4%	580명	602명	+22명	7	12	▼5
	제주	271억원	0.8%	268명	367명	+99명	12	6	▲6
	세종	92억원	0.3%	265명	264명	△1명	16	16	-
	소 계	2,736억원	7.9%	3,299명	3,972명	+673명	-	-	-
합 계	34,468억원	100.0%	38,232명	46,236명	+8,004명	-	-	-	

'22년 상반기 유니콘 이력기업 고용 현황

'22년 상반기 기준 유니콘기업(23개사)이거나 과거 거대신생기업(유니콘)기업(9개사)이었던 32개사 중, 이번 분석 대상인 '22년 6월 말 당시 벤처기업 또는 '22년에 투자를 받은 기업은 14개사*였으며, 이들 기업은 '22년 6월 말 1만 942명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참고 : 벤처기업 11개사와 벤처투자 받은 기업 8개사의 중복기업 5개사를 제외

이는 '21년 6월 말과 비교해 3,092명 늘어난 것으로 고용 증가율은 무려 39.4%에 달했다. 기업당 고용 증가를 보면 거대신생기업(유니콘)이력기업 14개사가 약 220.9명을 추가로 고용하면서, 벤처기업 혹은 벤처투자 받은 기업 3만 4,362개사의 평균 고용 증가 인원 2.0명의 110배를 상회했다.

< '22년 상반기 거대신생기업(유니콘) 이력기업 중 혁신 벤처·창업초기기업(스타트업) 고용 현황 (단위: 명) >

구 분	'21년 6월말	'21년 12월말	'22년 6월말	'21년 대비		증 가	증가율	기업당 증가
				6월말	12월말			
전 체 (34,362개사)	693,477	728,811	761,082	전 체		+67,605	+9.7%	+2.0
거대신생기업(유니콘)이력기업 (14개사)	7,850	9,474	10,942	거대신생기업(유니콘)이력기업		+3,092	+39.4%	+220.9
비 중	1.1%	1.3%	1.4%	전 체		+32,271	+4.4%	+0.9
				거대신생기업(유니콘)이력기업		+1,468	+15.5%	+104.9

< '22년 상반기 혁신 벤처·창업초기기업(스타트업) 중 거대신생기업(유니콘)이력기업의 고용 현황(단위: 명, %) >

기 업 명	현재 거대신생기업(유니콘)기업	'21년 6월말 고용현황	'22년 6월말 고용현황	'21.6월말 대비		벤처기업	투자기업	비고
				증가	증가율			
두나무	○	256	494	+238	+93.0		○	
비바리퍼블리카	○	452	749	+297	+65.7	○		
F사(비공개 요청)	○	572	1,122	+550	+96.2	○	○	
컬리	○	1,896	2,597	+701	+37.0	○		
G사(비공개 요청)	○	278	362	+84	+30.2	○	○	
버킷플레이스	○	284	536	+252	+88.7	○	○	
H사(비공개 요청)	○	307	439	+132	+43.0		○	
당근마켓	○	175	303	+128	+73.1	○		
아이지에이웍스	○	134	137	+3	+2.2	○	○	'22년 신규
여기어때컴퍼니	○	414	542	+128	+30.9		○	'22년 신규
오아시스	○	693	767	+74	+10.7	○		'22년 신규
I사(비공개 요청)	○	276	251	△25	△9.1	○	○	
우아한형제들	X	1,297	1,741	+444	+34.2	○		
J사(비공개 요청)	X	816	902	+86	+10.5	○		
합 계		7,850	10,942	+3,092	+39.4	11개사	8개사	

중기부 조주현 차관은 “최근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高) 위기로 경제환경이 우려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 벤처·창업초기기업(스타트업)들은 전체 기업에 비해 월등히 높은 고용 증가율을 보였고, 특히 청년 일자리 창출의 절반을 책임지면서 고용 창출의 새로운 주역으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하면서,

“올해 중기부는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도입, 민간모펀드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 등을 힘있게 추진함으로써 혁신 벤처·창업초기기업(스타트업)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 우리 경제의 도약과 회복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해당 통계는 중소벤처기업부가 '22년 상반기 혁신 벤처·창업초기기업(스타트업)의 고용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분석한 통계로, 통계법에 따른 국가승인통계가 아님을 밝힙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투자회수 관리과 최형민 사무관(☎ 044-204-7722), 윤원민 주무관(772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